

日本 古代地名 및 人名에 借用된 「麻」에 대하여

李 鍾 徹*

I.

古代 日本人들의 作名方式을 살펴 보면 우리와는 어떤 깊은 關連이 있어 보이며, 우리의 絶對的인 影響을 받았던 것으로 推定된다.

우리의 古代人名이 大部分 地名에서 비롯된 것처럼, 이런 用例가 上代 日本에서도 많이 보인다. 가령, 百濟 第二十五代 '武寧王'을 '扶餘斯摩' 日本의 磯城島에서 베풀하던 '蘇我馬子'를 '島大臣'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漢字를 借用하여 地名 및 人名을 固有名으로 읽던 三國時代의 表記法을 日本에서도 그대로 따랐던 것 같다. 가령, 「磯城島」를, 「斯歸斯麻(シキシマ)」로, 「島大臣」을 「斯麻大臣(シマオホマヘツキミ)」로 表記한 것이다,

또 王號나 社會的 身分을 표시하는 官名에서 따온 듯한 「麻系돌림字」式, 作名例가 그대로 日本 古代人名에서 發見된다¹⁾. 가령, 新羅 王號나 高句麗 官名으로 推定되는 [mari]가 日本 古代人名인 「麻里, 麻利, 麻立」등에서 借用例로 보인다. 또, 우리가 奴婢를 入住시킬 때 所自出로 이름을 삼던 作名方式이 日本의 경우에도 近代로 내려오면서 明治維新 以後 平民階級의 作名에 그대로 反映된 듯하다²⁾. 가령, 奴婢名에서 所自出로 이름을 삼은 用例³⁾ 行吉(행길), 某通介(모통이), 于勿介(우물), 大門伊(대문), 夫儂伊(부억) 등

* 人文大 助教授(國語學專攻)

1) 李弘禧, 韓國古代史의 研究 pp. 350~361 參照.

2) ① 閔斗基, 日本의 歷史 p. 216 參照.

② 世界百科事典 vol. 13 p. 109 姓名條 參照.

3) 崔範勳, 漢字借用表記體系研究 pp. 33~34 參照.

과 같이 現代 日本人 姓에서도 河合(かわい), 堀口(ほりぐち), 松下(まつした), 城戸(きど), 市場(いちば), 寺内(てらうち), 小倉(おくら), 木下(きのした), 井上(いのうえ), 山下(やました), 小島(こじま), 中島(なかじま), 下村(しもむら), 土屋(つちや) 등 所自出로 이름을 삼은 作名例를 볼 수 있다, '日本書紀'나 '古事記'에 依하면, 古代日本은 韓半島와는 頻繁한 文化的 交流를 하여 漢字를 배워갔기 때문에 그 表記法에 있어서도 至大한 影響을 받았을 것이다(Ⅱ. 參照). 또, 百濟系 船史一族들이 古代日本의 모든 筆錄을 擔當했을 것으로 推定되므로⁴⁾ 그들에 依한 韓半島의 作名方式이 當時 日本에도 輸入되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日本의 上代文獻 특히 推古遺文을 비롯하여 古事記, 日本書紀, 萬葉集 등에서 人名 및 地名 表記 資料에서 많이 借用된 音假名로서의 「麻(マ)」를 考察하여 日本에서 所謂 '慣習音'이라 稱하는 이 [ma](麻)가, 吳音[me] 및 漢音[ba]과는 軌道를 달리한 「東音系假名」라는 主張을 세워 보는데 그치려 한다.

Ⅱ.

漢字가 日本에서 文字機能을 本格的으로 發揮하게 된 것은 日本列島로 건너간 우리 先祖들에 依한 漢文學習의 指導를 받은 以後부터라고 推定된다. 日本書紀나 古事記의 記錄에 依하면⁵⁾ 당시 事情을 잘 살필 수 있다. 日本書紀 應神 十五年 秋八月에 百濟王이 阿直岐를 시켜서 良馬 二匹을 보냈다.

4) 拙稿, 日本上代文獻에서 東音系로 推定되는 「菊, 宿, 筑」의 表寫에 대하여 pp.102~103 參照.

, 推古朝遺文에서의 「烏, 都, 奴, 布」의 表寫에 대하여 pp. 30~31 參照.

, 元興寺 露盤銘에 대하여(Ⅱ項 參照)(서울大 人文論叢 第三輯).

5) ¹⁾ 十五秋八月, 百濟王遣阿直岐貢良馬二匹, 阿直岐亦能讀經典, 即太子菟道稚郎子師焉, 於是天皇問阿直岐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仁者是秀也, 時遣上毛君荒田別巫別於百濟, 仍徵王仁也. 其阿直者, 阿直岐史之始祖也. 十六年春二月,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故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日本書紀>

²⁾ 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牝馬壹疋付阿知吉師以貢上(此阿知吉師者阿直史等之祖)亦貢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若有賢人者貢上. 故受命以貢上人名和邇吉師, 即論語十卷, 千字文一卷, 并十一卷付是人即貢進(此和邇吉師者文首等祖). <古事記>

그들은 阿直岐로 하여금 掌飼를 시켰다. 그런데, 阿直岐는 經典을 잘 읽었으므로 太子 菟道稚郎子の 스승으로 삼았다. 王이 阿直岐에게 너보다도 글을 더 잘하는 博士가 百濟國에 있느냐고 물으니 그는 王仁이란 사람이 優秀하다고 했다. 王이 바로 上毛野君의 祖 荒田別 巫別을 百濟에 보내서 王仁을 불러오게 했다. 十六年 春二月에 王仁이 왔다. 그래서, 太子 菟道稚郎子の 스승으로 삼아서 諸典籍을 學習했다. 또 古事記에는 應神王때 百濟의 照古王(肖古王)이 阿知吉師에 부쳐서 牡牝의 말을 보냈고, 橫刀와 大鏡' 賢人을 求해서 和邇吉師(즉 王仁 吉師는 韓系의 官名임)에 부쳐서 論語十卷과 千字文 一卷을 보냈다고 한다.

위의 日本書紀나 古事記의 記錄을 사실로 믿는다면 日本列島로 渡倭한 우리 先祖들이 그들에게 文章讀解라든지 文章表記를 指導했다는 사실만은 確實하다. 日本의 文章表記가 우리先祖들에게서 始作되었다면 이들이 당시 傳授했을 漢字音이 어떤 것이었는가 究明해 볼 必要가 있다고 본다. 日本이 우리로부터 漢字를 배웠고, 表記法의 影響을 받았다면⁶⁾ 「字音」에 있어서도 반드시 影響을 받았을 것으로 推定되므로 日本漢字音이 中國의 「字音」을 直輸入했다고 主張하기 보다는 韓半島에 輸入·同化된 「字音」이 다시 日本列島로 건너갔으리라고 推定하는 편이⁷⁾ 더 合理的인 說明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日本이 當時 中國 六朝와는 直接的인 文化交流가 없었고 오직 百濟의 仲介를 통해서만이 이룩되었기 때문이다.

諸橋轍次에 依하면⁸⁾ 「麻」는 吳音에서 「メ」, 漢音에서 「バ」, 慣習音에서 「マ」라 했다. 그런데, '慣習적으로 굳어진, 所謂 慣習音 「マ」의 起源은 무엇일까? 日本 漢字音이 中國으로부터 直接 輸入된 것이 아니고 一段 韓半島를 걸쳐 日本에 傳授되었다면 그 全部는 아니라도 그 중 一部만은 반드시 韓半島의 音韻構造에 同化되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가 中國 上古音 [ma]⁹⁾를 그대로 繼承하여 왔고, 百濟系인들의 渡倭時

6) 李崇寧,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關한 試論 p. 125 參照.

藤井茂利, 萬葉集の 音假名と 朝鮮漢字音 pp. 79~91 參照.

大野晉, 古代日本人の ことばと 文字 「言語生活」 292號 參照(座談會 記錄).

7) 藤井茂利, 古代日本文化と 朝鮮 p. 18 參照.

8)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十二 p. 939 參照.

9) 諸聲表에 依하면 魚部聲에 속하는 「麻」는 「莫遐切」(古, 莫何切), 廣韻(宋本)

日本으로 가져가서 推古朝遺文을 비롯한 上代文獻에 反映된 것¹⁰⁾이 아닐까 推定된다. 따라서, 「麻(ma)」는 吳音[me] 및 漢音[ba]와는 전혀 다른 軌道를 밟은 東音으로 推定된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人名表記에서 「麻」의 用例——麻牟 또는 斯麻, 麻常彌, 麻奈父奴, 昔麻帝彌 등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單字姓인지, 複字姓인지, 또는 單字名인지, 複字名인지 그 區劃을 究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說明의 便宜上 以下에서는 「麻 돌림 字」로 稱하기로 한다. 이런 「麻 돌림 字」는 古代 日本人名에서 많이 볼 수 있다. 「麻里麻利, 麻呂, 麻鹵, 麻路」¹¹⁾를 비롯하여, 麻奈, 麻那[マナ]¹²⁾, 麻怒[マヌ]¹³⁾ 麻己, 麻古[マコ]¹⁴⁾, 麻都[マツ]¹⁵⁾, 麻須[マス]¹⁶⁾, 麻加, 麻弼[マカ]¹⁷⁾, 麻刀, 麻得, 麻德[マト]¹⁸⁾, 麻多, 麻拖[マタ]¹⁹⁾, 麻佐[マサ]²⁰⁾ 등에서도 「麻系 돌림 字」의 用例를 찾을 수 있다.

앞에서 例示한 用例중 「麻里, 麻利」 및 「麻呂, 麻鹵, 麻路」의 起源을 살펴 보기로 한다. 「宗, 上, 頭(首)」의 意味를 지닌 [nari]는 新羅 訥祇王, 慈悲王, 炤知王, 知證王 등의 王號인 「麻立于」과, 高句麗 官名인 「莫離支」에서 各各 비롯된 듯하다²¹⁾. 또, [maru] 및 [maro]는 接頭的 「麻系 돌림 字」

에 의하면 「莫霞切」

- 10) 麻那布奴(マナフヌ), 阿沙都麻(アサツマ), 有麻移刀等已刀彌彌乃彌己等(ウマヤドトヨドミミノミコト), 昔麻帝彌, 麻高垢鬼(以上 露盤銘), 蕤奈久羅乃布等多麻斯岐乃彌己等(ヌナクラノフトタマシキノミコト)(以上 續帳銘), 巷直汗麻古大臣(ソガノウマコノオホマヘツキミ)(系譜), 第比彌麻和加(オトヒミマワカ)(上宮記).
- 11) 麻里古王(聖德太子의 子), 麻利彌和(百濟의 努理使主의 後孫), 麻呂大臣(蘇我倉山田石川麻呂), 麻呂古王(聖德太子의 子), 石麻呂, 伊保麻呂, 胡麻呂(百濟臣), 麻路女(東大寺婢)
- 12) 麻奈毗古(上野國의 舍人), 麻奈文奴(百濟의 瓦博士), 麻那君(百濟의 臣), 木孺麻那(百濟의 臣)
- 13) 麻怒王(欽明天皇의 皇子)
- 14) 麻己等女(婢)
- 15) 佐魯麻都
- 16) 麻須郎女(丹波河上 麻須郎女)
- 17) 麻加伎留女(官婢), 麻加世(奴), 麻加和介(意富富橋王의 子), 麻弼牟(人名)
- 18) 麻刀自女(婢), 麻得女(官婢)
- 19) 麻多伎女(官婢), 麻多鳥, 麻拖能鳥(但馬國의 人)
- 20) 麻佐利賣(婢), 麻佐賣(婢)
- 21) 梁柱東, 古歌研究 p. 71 參照.

와, 百濟의 王諱인 「多婁(第2代多婁王)」 「己婁(第3代己婁王)」 「蓋婁(第4代蓋婁王)」 「比流(第11代比流王)」 「枕流(第15代枕流王)」 또는 「蓋鹵(第21代蓋鹵王)」 등에서의 接尾의 [~ru] 및 [~ro]와의 反映으로 推定된다(百濟地名 「馬老」와도 關連이 있을 듯하다) 또, 「眞」를 訓假名 [ma]로 읽은 「眞立[マリ]」, 「眞老[マロ]」의 用例도 보이는데, 이것도 三國史記에 收錄되어 있는 新羅王諱——眞會(2代多婁王), 眞果(5代 肖古王), 眞忠, 眞勿, 眞可(7代古爾王), 眞義(10代 比流王), 眞淨, 眞高道(13代 近仇首王) 등과 關連이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²²⁾. 百濟系人의 記錄으로 推定되는 推古朝遺文에서 똑같은 繡帳銘 속에 收錄된 「麻里古王」을 「マリコ王」과 「マロコ王」으로 각각 달리 表記한 用例²³⁾가 보이는데, 여기서 [mari]와 [maro]가 相互通用되었음을 본다(推古遺文에서 「麻呂子王(マロコ)이 보인다)

推古朝遺文의 音假名 중 「里」는 대부분 [ro]로 읽혔고, [ri]의 用例는 오직 2個 뿐이다²⁴⁾. 吳·漢音이 모두 [ri]이므로, 이와 다른 軌道를 밝은 [ro]는 百濟系 東音으로 推定된다(後述)²⁵⁾. 그런데, 위의 人名에 借用된 「麻」의 起源은 地名에서 비롯된 것으로 推定된다²⁶⁾. 우리의 古代 島嶼名——麻(平安

22) 李弘植, op. cit. p. 350 參照. 또 古代 日本人名에서:

眞弟萬呂(官奴), 眞立(官奴), 眞國女(官婢), 眞刀自女(官婢), 眞鯛(官婢), 眞次麻呂(東大寺奴), 眞鯛女(東大寺婢) 眞鹽(東大寺婢), 眞限女(東大寺婢), 眞系女(東大寺婢), 眞魚女(嶋宮婢), 眞敷(嶋宮奴), 眞成(嶋宮奴), 眞甘(奴) 眞吉(奴), 眞積女(婢), 眞枝足女(婢), 眞玉女(婢), 眞毛津(百濟의 縫衣工女) 眞鋒田高天(雄略天皇의 皇太后의 厨人), 眞敷刀俤(尾張大印岐의 女), 眞舍媛(十市縣 主等祖의 女), 眞砥野媛(垂仁天皇妃, 丹波道主王의 女)

23) 推古朝遺文 중 <上宮太子系譜>에는 「里」를 [ro]와 [ri]로 읽은 用例가 보인다. 「麻里古王」을 「マロコ」와 「マリコ」로 읽음.

24) 推古朝遺文에서는 [ro]가 支配的이다. 阿米久爾意斯波留支比里爾波乃彌己等(アメクニオシハルキヒロニハノミコト)<繡帳銘>, 阿米久爾意斯波羅支比里爾波乃彌己等(アメクニオシハラキヒロニハノミコト)<露盤銘>, 比里古女郎(ヒロコノイラツメ)<系譜>, 己乃斯里(コノシロ)<系譜>, [ri]로 읽힌 用例는 다음의 2個 뿐이다.

伊波己里和氣(イハコリワケ)<上宮記>, 麻里古王(マリコ王)<系譜>

25) 藤井茂利, 推古朝遺文의 假名と朝鮮漢字音 pp. 102~3.

拙稿, 元興寺 露盤銘에 대하여(IV項 參照)(서울大 人文論叢第三輯)

26) 麻且奚推封(マシヨケイスキフ)(地名)<書>, 安治可麻(アヂカマ)(地名), 可麻久良(カマクラ)(地名), 久麻吉(クマキ)(地名), 奈我波麻(ナガハマ)(地名),

道の 義州), (京畿道の 南海), 麻飛(全羅道の 珍島), 麻次(忠清道の 洪州), 麻田(咸鏡道の 慶興)²⁷⁾ 등에서 「麻」를 [sam]으로 釋借하였는데, 이것은 古代 日本에서 固有名으로 表記한 「斯麻(sima)²⁸⁾」와도 關連이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中世國語에서의 [sjəm]參照). 「嶋」를 訓假名로 읽은 人名例²⁹⁾도 있다. 「夫餘(또는 ‘餘’)」란 國名이 뒤에 百濟王家的 姓氏가 된 點과, 古代 日本의 地名(또는 國名)인 ‘磯城島’에서 녀술한 ‘蘇我稻目大臣’을 ‘島大臣’이라 稱한 것과도 關連이 있을 듯하며, 또 漢字를 借用하여 固有名을 表記하던 方式——「磯城島」를, 「斯歸斯麻(シキシマ)³⁰⁾」로, 「馬子」를 「汗麻古(ウマコ)」로, 「橘王」을 「多至波奈等已比乃彌己等(タチバナトヨヒノミコト)」³¹⁾— 등은 三國時代의 表記法과 깊은 關連이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現存하는 最古의 記錄으로 알려진 推古朝遺文에서도 「嶋」를 固有名으로 읽은 「斯麻」가 보인다³²⁾. 古事記의 「斯麻」(또는 「志麻, 志摩」), 萬葉集의 「志麻」, 日本書紀의 「斯摩」³³⁾ 등이 보인다.

위의 「斯麻」에서의 「斯」는 三國의 地名 및 人名 表記에서도 多用되었는데

可良等麻里(カヲトマリ)(地名), 須麻(スマ)(地名), 多麻(タマ)(地名), 麻都良(マツラ)(地名)

朴性鳳 }
27) 方東仁 } , 大東輿地圖 索引 pp. 45~47 參照.
丁原鉦 }

28) 日本書紀에서는 「嶋」를, 「斯麻, 斯摩, 志麻, 志摩」로 表記하였다.

29) 日本 古代人名에서는 「嶋(シマ)」에서 비롯된 作名例가 많다.

嶋郎(仁賢天皇), 嶋大臣(蘇我馬子宿稱), 嶋吉事(河內國石川郡人), 嶋安麻呂(河內口 石川郡 波多卿의 人), 嶋麻呂(河內口 石川郡 紺口卿戶主), 嶋三立麻呂(經師), 嶋田大橋(經師), 嶋垂根(櫻井田部連의 祖), 嶋田臣村田(清田의 父)

30) 推古朝遺文 중 「丈六銘」, 「纏帳銘」, 「露盤銘」 등에서 「磯城島宮(シキシマノミヤ)」를 固有各인 「斯歸斯麻宮」로 表記하였다.

31) 「纏帳銘」에서 「橘王」를, 「多至波奈等已比乃彌己等」(タチバナノミコト)式 固有名으로 表記했다.

32) 「磯城島宮」를 「斯歸斯麻宮(シキシマノミヤ)」로 읽었다(露盤銘, 丈六銘, 纏帳銘).

33) 斯麻(シマ)上三四オ 6, 五八オ 7, 斯麻理母登本斯(シマリモトホシ)下三八オ 8, 志麻(シマ)下三ウ 4, 志麻都登理(シマツトリ)中ハオ 3, 阿波志摩(アハシマ)下三ウ 3(以上 古事記). 斯摩宿禰(シマスケネ)三 1971, 志摩國(シマクニ)五 3893(以上 日本書紀). 之奇志麻(シキシマ)二十 51ウ, 之麻(シマ)二十 62オ, 思麻(シマ)十五 6オ.

34) 日本의 上代文獻(古, 萬, 書)에서도 借用例³⁵⁾를 볼 수 있다. 藤堂明保博士의 音韻變遷 推定——「周 sieg→六朝 sie 吳音シ→唐 si 漢音シ」³⁶⁾과 江有誥氏의 推定——「息移切 改 息支切」³⁷⁾에 依하면 支紙韻에 속하는 「斯(se)」가 [sə]와는 當代 中國音에서 音韻論的으로는 差異가 없었던 것으로 東音에서 [a]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比較的 前舌的으로 實現된 [sə] 및 [si]와 音韻 相互 間의 對應이 推定된다³⁸⁾. (「志麻, 志摩」에서, 「志」의 韻目은 「斯」와 대체로 一致되는 中舌 乃至 前舌的이고, 聲頭音에 있어서 口蓋音化된 六朝音 [tʃ]와 一致된다).

위의 「斯麻」에서의 「麻」는, 「韻鏡」에 依하면 內轉 第二十九 開 清濁 唇音으로서 「馬[ma]」와는 같은 音이다. 또 古韻集說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韻分類³⁹⁾에 依하면 「麻」와 「馬」는 똑같은 6. 7. 17韻으로 묶어 놓았다. 그런데, 「麻」와 「馬」가 江有誥氏의 推定대로 「麻」는 「莫遐切」, 「馬」는 「莫下切」이고 이것이 대체로 「廣韻」까지 그대로 내려와서 「麻」는 「莫霞切」, 「馬」는 「莫下切」이지만⁴⁰⁾ 江有誥氏의 推定⁴¹⁾대로 「麻」가 옛날에는 「莫何切」로서 中舌的 半開音이었던 것이 나중에 「莫遐切」로서 後舌的 開音으로 變遷한 것이고, 「馬」는 옛날에 「莫戶切」로서 圓唇的이었으나 결국 後舌的 開音으로 變하여, 兩者가 相互 音相의 類似로 通用된 것으로 推定된다. 日本書紀의 朝鮮關係表記 資料에 依하면 「麻」對 「馬」는 [ma]라는 音相의 一致로 因하여 相互 通用된 用例가 보인다⁴²⁾. 諸橋轍次에 依하면 「馬」의 吳音은 「メ」, 漢音은

34) 이승녕, op. cit. p. 98. 居斯勿<百>, 烏斯舍達, 古斯馬, 烏斯押, 夫斯波衣<句>, 奴斯火<新>(以上 地名). 辰斯王, 斯由(以上 百濟人名 p. 113)

35) 斯母(シモ)<霜>五 10オ, 斯咩斯(シメシ)<示>五 13ウ, 與斯(ヨシ)<喜>五 15ウ
多努斯久(タヌシク)<樂>三 32オ, 等母斯佐五 22オ(以上 萬葉集). 久斯牟羅
(クシムラ)<地名>四 2630<日本書紀>, 斯麻(シマ)<嶋>上三四オ 6<古事記>.

36) 藤堂明保, 漢字語源辭典 p. 481 參照.
江有誥, 諧聲表 支部聲「息移切改息支切」p. 8.

37) Loc. cit.

38) 金完緘,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 pp. 91~93 參照.

39) 「麻馬禱」가 崑山願氏十韻表에서 「六韻」, 江氏古韻表에서 「七韻」, 「金壇段氏十七韻」에서 「十七韻」.

40) 陳彭年, 校正宋本廣韻 <麻> 莫霞切, <馬> 莫下切

41) 江有誥, op. cit. pp. 6~8 參照.

42) 萬葉集에서도 「麻」와 「馬」의 通用된 用例가 보인다.

「バ」, 慣習音은 「マ」라고 하였는데, 이 중 所謂「慣習音」[ma]는 韓半島로부터 日本列島로 건너간 百濟系 東音으로 推定된다. 특히 中國系 人名 表記⁴³⁾에서 「馬」를 漢音的 「バ」로 읽었는데, 百濟系 人名 表記⁴⁴⁾에서는 모두 「マ」로 읽은 것은 우리의 注目を 끈다. 이것은 日本人名—— 馬來田(ウマクダ), 馬子(ウマコ), 馬手(ウマテ) 등에서 「馬」字를 모두 訓讀한 것과 對照的이라 하겠다. 그러나, 日本 上代文獻에서 固有名을 漢字로 借用하여 表記한 用例—— 宇馬夜(ウマヤ), 宇馬(ウマ), 黑馬(クロマ), 古字馬(コウマ), 古馬(コマ), 相馬郡(サウマノコホリ) 등은 確實히 三國時代의 表記法의 영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東音系 [ma]가 日本 上代文獻에 反映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 「馬[ma]」는 三國時代의 地名表記例⁴⁵⁾에서도 보인다. 특히 島嶼名 表記에서 音借한 「馬[ma]」⁴⁶⁾는 訓借한 「麻」(前述)와도 깊은 關聯이 있을 듯하다.

앞의 用例에서 「島」를, 「斯麻」 및 「斯摩」로 表記하였는데, 여기서 「麻」와 「摩」의 對應이 보인다. 두 字가 모두 清濁 唇音이지만 韻鏡에 依하면 「麻」는 「內轉 二十九 開」이고, 「摩」는 「內轉 二十八 合」이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古代 日本文獻에서 「馬」對 「麻」 또는 「馬」對 「摩」, 그리고 「麻」對 「摩」도 相互 通用되었음을 본다.

왜냐 하면 「馬」가 「莫戶切」에서 「莫下切」(mo→ma)로 되고, 「麻」가 「莫何切」에서 「莫遐切」(ma→ma)로 되어, 결국 [ma]에 一致되었다. 다시, 「馬」

「古麻(コマ)」(十四 17ウ)와 「古馬(コマ)(駒)」(十四 9ウ), 「宇麻夜(ウマヤ)」(二十 42オ)와 「宇馬夜(ウマヤ)(鹿)」(十四 17オ)

- 43) 馬雲(バウン)(明, 合肥사람), 馬永(バエイ)(明, 遼安사람), 馬榮(バエイ)(明, 徐州사람), 馬苑(バエン)(明, 江寧사람), 馬昂(バカウ)(明, 滄州사람), 馬吳(バカウ)(明, 寧夏사람), 馬逸(バイツ)(清, 사람), 馬琛(バカイ)(清, 武功人), 馬衡(バカウ)(清, 吳縣사람), 馬錦(バキン)(清, 사람)

- 44) 馬次文(マジモン) 또는 馬進文(マシンモン)(百濟의 臣), 四 2741, 馬丁安(マテイアン)(百濟의 五經博士)五 2768, 馬武(マム)(百濟聖明王의 臣)五 3334(以上 日本書紀).

- 45) 이승녕, op. cit. p. 91 馬山(韓山), 馬斯良(會寧)<百>, 馬西良(沃溝), 馬利(利安)<新>, 馬忽(抱川)<句>

- 46) 馬(島); ①평안도 龍川 ②함경도 文川 ③충청도 泰安 ④전라도 康津 ⑤경기도 熊川

馬槽(島); 전라도 光陽

가 mo→ma로 되듯이 「內轉 二十八 合」인 「摩[mo?」가 뒤에 [ma]로 변천된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日本 上代文獻인 古事記나 萬葉集에서도 「麻」및 「摩」가 相互 通用된 用例⁴⁷⁾가 보인다. 三國時代의 人名 表記⁴⁸⁾에서도 「摩」의 用例가 발견된다.

Ⅲ.

以上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半島가 日本 上代表記法에 絶對的인 影響을 주었음이 推定된다. 왜냐하면 應神王때부터 이미 百濟의 阿直岐와 王仁博士가 日本列島로 건너가서 漢字學習을 指導했고, 敏達王때부터는 百濟系의 王辰爾를 비롯하여, 그 後孫인 般史一族들이 대대로 繼承하면서 ‘天皇記’ 및 ‘國記’ 등 당시 日本의 모든 筆錄을 擔當했던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2. 日本이 古代 地名 및 人名 表記에서 漢字를 借用하여 자기네 固有有名을 表記한 方式도 三國時代의 表記法을 따랐을 것으로 推定된다. (「嶋」를 「斯麻, 斯摩」의 [シマ]로, 「馬」를 「有麻」, 「宇馬」 등의 [ウマ]로 읽었음) 특히 百濟系의 記錄으로 推定되는 推古朝遺文이나 日本書紀 三國關係 表記資料에서 그런 用例가 적 많다.

3. 위의 1, 2에 미루어 볼 때, 三國時代의 作名方式이 古代 日本人名 表記에 影響을 미친 것으로 推定되며 ([mari], [maro] 參照) 明治維新以後 平民階層의 作名方式에도 그대로 踏襲되어 現在까지 내려온 듯하다. 즉 우리가 奴婢의 이름을 所自出에서 作名하던 方式—— 加平介(가평), 鷄龍山(계

47) 奈我波麻(ナガハマ)(地名)十七 36オ, 多麻(タマ)(地名)十四 11ウ, 須麻(スマ)(地名)三 44オ, 久麻吉(クマキ)(地名)十一 50オ, 可良等麻里(カラトマリ)(地名)十五 20ウ, 麻奈(マナ)(人名)十四 20オ, 胡麻呂(コマロ)(人名)〈以上 萬葉集〉. 爾列比麻須比(ニレヒマスヒ)(地名)四 2609, 奈麻禮(ナマレ)(新羅官名)四 2623, 佐魯麻都(サロマン)(人名)四 2704, 彌麻沙(ミマサ)(人名)四 2704, 또는 味摩之(ミマシ)(人名)〈以上 日本書紀〉, 麻佐首(マサノオビト)中 四八オ 8, 麻奴王(マヌミコ)下四五ウ 2, 天津麻羅(アツマラ)上 十九ウ 4, 또는 摩須郎女(マスノイラツメ)中四八オ 8, 摩都樓波奴(マンロハヌ)中四〇オ七 〈以上 古事記〉

48) 摩牟, 斯摩(以上 百濟人名), 摩離(高句麗人名), 祗摩尼師今(新羅人名)

崩산), 舍郎伊(사랑), 馬堂金(마당), 老積伊(노적), 于勿介(우물), 大門伊(대문) 등이 現在 日本인의 姓——河合, 松下, 堀口, 城戶, 寺內, 市場——에 영향을 준것으로 推定된다.

4. 日本이 韓半島로부터 渡倭한 우리 先祖에 依하여 漢字學習의 指導를 받았고, 우리의 三國時代의 表記法의 影響을 받았다면 당연히 「字音」에도 영향을 입었을 것이므로, 日本漢字音이 中國의 「字音」을 直輸入했다고 主張하기보다는 韓半島에 輸入·同化된 「字音」이 다시 日本列島로 건너갔으리라고 推定해보는 편이 더 合理的인 說明이 될 것이다.

5. 日本의 古代 人名 및 地名 表記에서 「嶋」를 固有名으로 읽은 「斯麻(シマ)」 및 「斯摩(シマ)」는 百濟 武寧王의 諱인 「斯摩」와 一致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왜냐하면 첫째: [sima]와 [sɛma]에서 音韻對應을 考察해 보면, 內轉 二十九開인 「麻」와 內轉 二十八合인 「摩」가 東晉 및 日本 古代漢字音에서 양쪽 모두 [ma]로 변하여 音相이 相互 一致되며, [si]와 [sɛ]의 音韻對應에서 東音이 [sɛ]로 받아들였지만 中舌 乃至 前舌의으로 實現되어, [si]와는 古代國語에서 音韻論의 差異가 없었던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둘째, 三國時代의 地名 및 人名 表記에 借用된 「斯」와 「麻」 및 「摩」가, 그대로 日本의 上代文獻에서 借用된 用例가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三國의 王號나 官名인 [mari] 및 [maro](또는 [maru])가 그대로 日本古代人名——麻里/麻利/麻立 및 麻呂/麻鹵/麻路 等に 反映된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넷째, 三國時代의 人名——麻牟, 斯麻, 麻常彌, 麻奈父奴, 昔麻帝彌 等 「麻系 돌림字」가 그대로 日本 古代人名——麻奈/麻那, 麻己, 麻古, 麻都, 麻須, 麻加/麻笏, 麻刀/麻得/麻德, 麻拖/麻多, 麻佐 等に 反映된 「麻系 돌림字」로 借用된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6. 「麻」의 吳音은 [メ], 漢音[マ], 慣習音은 [マ]라 했는데, 이 慣習的으로 굳어진 이 [ma]는 다름 아닌 東音系로 推定된다. 韓半島에서는 中國 上古音 [mæ→ma]를 그대로 維持해 오다가 當時 渡倭한 우리 先祖들이 日本列島로 가지고 간 東音系로 推定된다. 왜냐 하면 이 [ma]가 百濟系人들에 의한 記錄으로 推定되는 推古朝遺文에 그대로 反映되어 있다는 點과, 이 遺文이 日本에서 現存 最古의 記錄이란 點 때문이다. 그런 故로 「麻」의 所謂 慣

習音인 이 [ma]는, [me](吳音)와 [ba](漢音)와는 軌를 달리한 百濟系 東音으로 推定해 둔다.

[參考文獻]

- 姜信沆, “十五世紀文獻의 現實漢字音에 대하여” 1975.
(成大刊行 東洋學 學術會議 論文集)
- 金完鎭,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震檀學報 24, 1963.
- 南廣祐, “朝鮮(李朝) 漢字音研究, 東亞出版社 1969.
- 閔斗基, 日本의 歷史 1975.
-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韓國文化叢書 13. 1972.
- 李崇寧,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관한 試論。1955.
(서울大論文集 人文社會科學 第二輯)
- 拙稿, “日本上代文獻에서 東音系로 推定되는 「菊, 宿, 筑」의 表寫에 대하여” 1977. (국어학 第5輯)
- 拙稿, “推古遺文에서의 「烏, 都, 奴, 布」의 表寫에 대하여 1978.
(서울大 人文論叢 第2輯)
- 拙稿, “元興寺 露盤銘에 대하여” 1979.
(서울大 人文論叢 第3輯)
-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 梁柱東, 古歌研究, 博文出版社, 1954.
- 崔範勳, 漢字借用表記體系研究, 東大 韓國學研究所 1977.
- 大野晋, 古代日本人의 ことばと文字 「言語生活」 第292號 參照.
- 藤井茂利, “古代日本文化と 朝鮮” 1977.
(鹿兒島大學 「薩摩路」 21號)
- 藤井茂利, “萬葉集의 音假名と 朝鮮漢字音, 1976.
(鹿兒島大學 「文學科論集」 第12號)
- 河野六郎, “朝鮮漢字音의 研究” 1964~1965.
(朝鮮學報 第31~35輯)

朴性鳳・方東仁・丁原鈺，大東輿地圖 索引 1976.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刊行)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晉，校注 日本書紀 上，下 1978.

(日本古典文學大系，岩波書店)

飯田武鄉，日本書紀通釋 第1~5卷 東京印刷株式會社 1903.

植松茂，古事記漢字索引，東京學 1945.

森山隆・鶴久，萬葉集，櫻楓社 1978.

前田金五郎・佐竹昭廣・大野晉，古語辭典，岩波書店 1978.

村林孫四郎，古事記辭典，錦正社 1943.

諸橋轍次，大漢和辭典，大修館書店 1969.

夏 斝，古韻集說

陳彭年等，校正 宋本 廣韻，芸文印書館

張麟之，韻鏡

江有誥，諧聲表

模範最新世界年表，三省堂